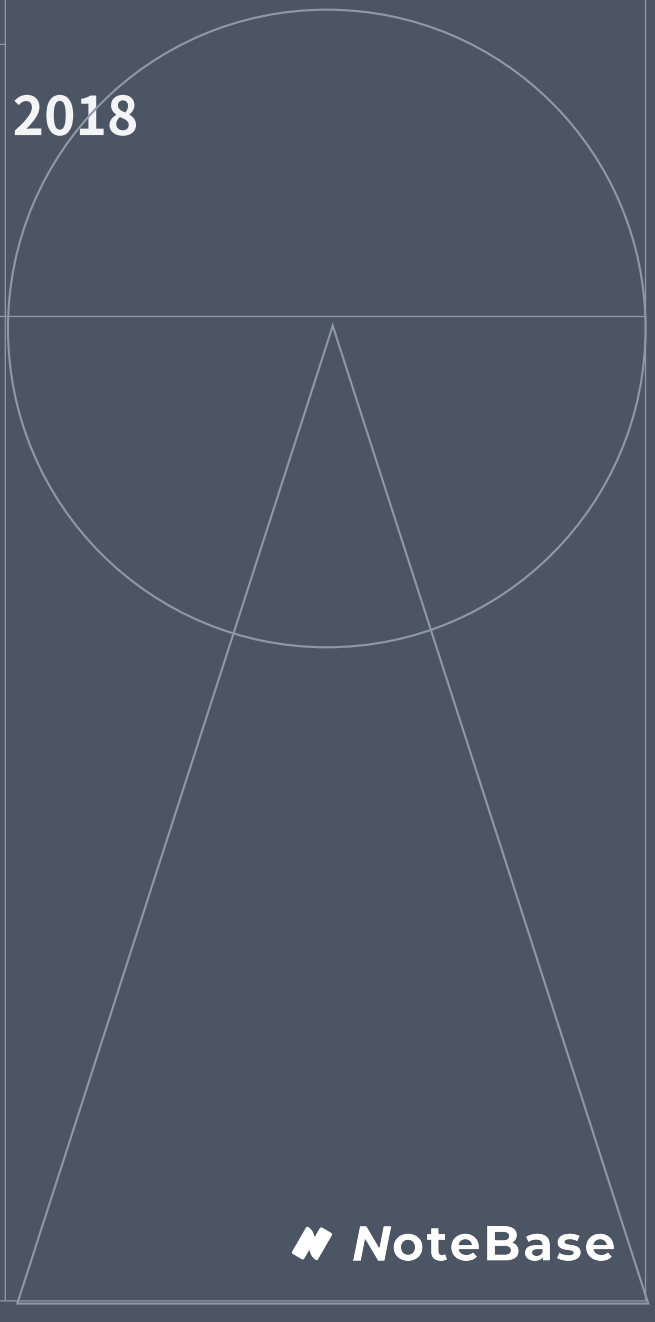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8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18

문 1. 밑줄 친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① 연계[연게] 교육

② 차례[차레] 지내기

③ 충의의[충이의] 자세

④ 논의[노늬]에 따른 방안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례’의 ㅖ 발음과 첫음절 이외의 ㅢ 발음 허용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 례’의 ㅖ는 [ㅖ]로 발음하고 [ㅔ]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 례’ 이외의 ㅖ는 [ㅖ]가 원칙이지만 [ㅔ]도 허용된다.
단어 첫음절 이외의 ㅢ는 [ㅣ]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충의, 논의’의 [충이], [노니]가 허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연계’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연계/연게]로 올라 있으므로 [연게]는 표준 발음이다. 틀린 부분은 이 발음을 ‘표준 발음이 아닌 것’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정답 후보가 아니다.
② O: ‘차례’의 ‘례’는 ‘예, 례’에 해당하므로 [차례]로 발음해야 한다. [차레]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차례]이다.
③ X: ‘충의의’의 [충이의]는 단어 첫음절 이외의 ㅢ를 [ㅣ]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는 표준 발음이다. 틀린 부분은 [충이의]를 비표준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정답 후보가 아니다.
④ X: ‘논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노늬/노니]로 올라 있으므로 [노니]는 허용되는 표준 발음이다. 틀린 부분은 [노니]를 비표준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정답 후보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실제 발음에서 ‘차례’를 [차레]로 많이 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이다. 반대로 ‘연계, 충의, 논의’는 각각 [연게], [충이], [노니] 같은 허용 발음이 있어 표기와 다르게 읽혀도 표준 발음일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례'가 들어간 단어인지 확인한다. '예, 례'의 ㅖ는 [ㅖ]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레]로 읽히면 비표준일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 첫음절 이외의 ㅢ인지 확인해 [ㅣ]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예·례는 [ㅖ]를 지키고, 나머지 ㅖ는 [ㅔ]를 허용하며, 첫음절 밖 ㅢ는 [ㅣ]를 허용한다.

NoteBase

문 2.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생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의 형식에 상응하는 기표(記標)와 기호의 의미에 상응하는 기의(記意)의 기호적 조합이라고 전제한다. 예를 들어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 필기도구'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기표는 한국어에서 '연필'이다. 그런데 '연필'의 기의에 대응되는 영어 기표는 'pencil'이다. 각기 다른 기표가 동일한 기의를 표현한 것이다. 소쉬르는 이처럼 하나의 기의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것을 두고 기호적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자의성은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호(code)에 따라 조율된다고 보았다.

① 표준어로 '부추'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에서 기호의 자의성을 엿볼 수 있겠군.

② 어떤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 그 개념을 쓰는 사회 성원들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겠군.

③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 약호가 유사한 지역에서는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군.

④ 사랑이나 진리와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각각의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도출할 수 있겠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자의적이지만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호에 의해 조율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기표는 언어 기호의 형식, 즉 소리나 문자와 같은 표현이다.
기의는 그 기호가 가리키는 의미 내용이다.
자의성은 하나의 기의가 반드시 하나의 고정된 기표와 자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호는 그 자의적인 연결이 공동체 안에서 관습적으로 굳어지는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표준어 '부추'에 대응하는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같은 기의가 서로 다른 기표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자의성과 맞닿아 있다.
2번: O. 새로운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 그 기표를 어떤 기의에 연결할지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다. 지문에서 말한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호의 조율 기능을 바르게 추론한 것이다.
3번: O. 같은 종교를 믿고 문화적 약호가 유사한 지역이라면 같은 기표에 대응시키는 개념도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지문은 자의성이 완전한 무질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코드 안에서 조율된다고 본다.
4번: X. 틀린 부분은 '보편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각각의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도출할 수 있겠군'이다. 개념이 보편적이라고 해서 그 개념을 표현하는 기표의 형식이 서로 비슷해지는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사랑이나 진리처럼 보편적인 개념도 언어마다 서로 다른 기표로 표현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자의성을 '아무렇게나 정해진다'로만 이해하면 4번처럼 보편적 기의에는 비슷한 기표가 따라올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기의의 보편성과 기표의 형식 유사성을 섞어 버리는 오류를 노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호 이론 추론 문제에서는 먼저 기표와 기의를 구분한 뒤, 같은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연결이 자연적 필연인지 사회적 약속인지 순서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쉬르의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며, 기의가 같아도 기표는 언어마다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문 3.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① 의인화 기법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찬미하고 있다.

②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다.

③ 유사한 종결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④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중심 정서와 표현 방식을 파악하여, 작품의 주제를 벗어난 설명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부여하는 표현이다.
이 시의 핵심은 자연 예찬이 아니라 슬픔을 통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존재와 연대하려는 화자의 의지이다.
'너'에게 말을 거는 방식과 유사한 종결어미의 반복은 이러한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인화는 나타나지만, 그것이 자연의 가치를 찬미하는 데 쓰인 것은 아니다. 이 시는 '슬픔', '기다림' 같은 추상적 정서를 사람처럼 다루면서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말한다. 틀린 표현은 '자연의 가치를 찬미'이다. 올바르게는 '의인화를 통해 슬픔의 의미와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대 의식을 드러낸다'이다.

② O
겨울밤 거리, 추위에 떠는 할머니, 동사 직전의 사람 같은 시어가 반복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중심을 이룬다.

③ O
'주겠다', '보여 주겠다', '멈추겠다', '걸어가겠다'처럼 비슷한 종결 표현이 반복되어 화자가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끝까지 동행하려는 의지가 강조된다.

④ O
시 전체가 '너'에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와 같은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정한 대화적 상황이 형성된다.

오답 포인트

의인화가 보이면 곧바로 대상 찬미로 연결하는 오독이 자주 나온다. 이 문항의 함정은 '의인화'라는 표현 기법은 맞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를 잘못 연결한 ①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대시 감상 문제에서는 표현 기법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기법이 작품의 어떤 정서와 주제를 드러내는지까지 이어서 판단한다. 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자연인지, 사회적 고통인지, 화자의 태도인지부터 먼저 구분하면 오답을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의인화의 존재와 의인화의 목적은 다르다. 이 시는 자연 예찬이 아니라 슬픔을 통한 연대의 시이다.

NoteBase

문 4.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행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키즈 존(No Kids Zone)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대학교 홍◯◯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노키즈 존이 정확하게 뭔가요?
홍 교수: 사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특정 연령 이하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진행자: 공공 목적을 가진 곳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상업 시설에서도 그런가요?
홍 교수: 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도 해당됩니다.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나 불만으로 인해 전체 매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진행자: 아, 어린이 동반 손님을 받다 보면 오히려 다른 손님들을 더 많이 못 받을 수 있다?
홍 교수: 네. 아무래도 경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겠죠.
진행자: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언뜻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 운행과 같이 또 다른 차별의 예를 떠올리게 하네요.
홍 교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가 시장주의 위주로 성장해 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같은 부분은 깊이 생각해 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물론 특정 집단의 차별에 대해 일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경험했던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① 상대방의 발언에 적극 동조하며 다음 인터뷰를 기약한다.
② 예상되는 반론 가능성을 차단하며 자기의 주장을 관철한다.
③ 사례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진행자가 상대의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는지, 사례를 던져 새로운 관점의 사고를 유도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진행자는 먼저 노키즈 존의 의미와 운영 이유를 차례로 묻는다.
이후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 운영'이라는 사례를 언급해 노키즈 존을 차별 문제와 연결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마지막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여 논의를 한쪽으로 닫지 않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유도형 말하기는 사례나 질문을 제시해 상대가 자신의 견해를 더 풀어내거나 다른 측면을 생각하도록 이끄는 방식이다.
겉으로 공감하는 표현이 있더라도 뒤에서 논의를 넓히면 단순 동조가 아니라 사고 유도에 가깝다.

적용 기준

이 대화에서는 진행자가 상대의 말을 끊거나 몰아붙이지 않고, 다른 사례를 꺼내 차별이라는 쟁점을 더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적극 동조하며'와 '다음 인터뷰를 기약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진행자는 일부 수용하는 듯한 표현을 쓰지만 곧바로 전용 버스 사례와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다음 인터뷰를 약속하지 않고 감사 인사로 대화를 마무리한다. 올바르게는 '상대 발언을 부분적으로 받으면서도 사례 제시로 논의를 확장한다'이다.
2번 X: '반론 가능성을 차단'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진행자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 다른 입장을 열어 둔다. 올바르게는 '반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사례와 질문으로 쟁점을 드러낸다'이다.
3번 O: 진행자는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 운영'이라는 사례를 언급해 노키즈 존 문제를 차별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는 상대가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도록 만드는 말하기 방식이므로 가장 적절하다.
4번 X: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킨다'가 틀린 표현이다. 진행자는 교수 개인의 태도를 비판하기보다 노키즈 존이 지닌 사회적 쟁점을 묻고 있다. 올바르게는 '질문을 통해 사안의 사회적 쟁점을 드러낸다'이다.

오답 포인트

진행자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같은 완충 표현만 보면 1번처럼 단순 동조로 보기 쉽다. 그러나 실제 핵심은 이어지는 사례 제시와 추가 질문이 논의를 넓힌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문제는 공감 표현 자체보다 그다음 발화의 기능을 본다. 다음 발화가 논의를 끝내면 동조형에 가깝고, 사례나 다른 관점을 던져 생각을 넓히면 유도형에 가깝다.

암기 포인트

받아 주는 말 뒤에 사례 제시로 관점을 넓히면 단순 동조가 아니라 사고 유도형이다.

NoteBase

문 5.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모든 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한 의도였다.

②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 마련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③ 우리 팀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 방안을 고려해 왔다.

④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 성분이 의미와 문형 면에서 자연스럽게 호응하는지, 그리고 병렬로 이어진 성분이 대등하게 맞추어졌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 성분의 호응은 앞뒤 성분이 의미상 자연스럽고 문형상도 어긋나지 않게 이어지는 것이다.
병렬 구조에서는 함께 묶인 성분의 형식이 대등해야 하므로 명사구와 서술성 있는 관형 구성을 뒤섞으면 어색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것은 … 의도였다'이다. '한글을 만든 것'은 행위이고 '의도'는 행위를 일으킨 마음이므로 둘을 바로 등치하면 호응이 어색하다. 올바르게는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모든 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한 데에 있었다'처럼 고친다.
② X: 틀린 부분은 '식단 마련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이다. '식단 마련'은 명사구이고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은 관형절이어서 병렬 구조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균형 있는 식단을 마련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또는 '균형 있는 식단 마련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 조성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처럼 고친다.
③ O: '가능한 한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도록'이 목적을 나타내며 뒤의 '모든 홍보 방안을 고려해 왔다'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수식 관계와 서술 구조가 모두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가장 자연스럽다.
④ X: 틀린 부분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이다. '살펴보면'은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표현과 호응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올바르게는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처럼 고친다.

오답 포인트

③의 '관중이 동원되다'가 다소 강한 표현이라 어색해 보일 수 있으나, 이 문항은 표현의 세련됨보다 문장 성분의 호응을 묻는다. 실제 함정은 ①의 서술어 호응, ②의 병렬 구조 불일치, ④의 '살펴보면' 뒤에 바로 사건 진술을 붙인 연결의 어색함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성분 호응 문제는 먼저 서술어가 앞의 주어나 명사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본다. 그다음 'A와 B'처럼 병렬된 부분의 형식이 같은지, '-면' 뒤에 오는 내용이 판단·결론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면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호응 문제는 서술어 짝과 병렬 형식부터 본다. '것은 의도였다'처럼 바로 등치되면 한 번 더 의심한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그 길을 걸어 온 사람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② 대책 없이 쓸 데 없는 일만 골라 하니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③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다.
④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바 재발 방지책을 찾아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존 명사와 어미를 구별하고, 한 단어로 굳은 표현의 띄어쓰기를 판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일, 것, 경우'처럼 실질 뜻이 살아 있으면 앞말과 띄어 쓴다. 반면 '-는지', '-ㄴ바'처럼 문장을 이어 주는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쓸데없다', '알아보다'처럼 한 단어로 굳은 말은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참여하는데'이다. 여기서 '데'는 '참여하는 일에'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참여하는 데'로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문장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쓸 데 없는'이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의 '쓸데없다'는 한 단어이므로 '쓸데없는'으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문장은 '대책 없이 쓸데없는 일만 골라 하니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하는 지에'이다. 여기의 '지'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어미 '-는지'이므로 붙여 써 '하는지에'로 적어야 한다. '알아볼'은 한 단어 '알아보다'의 활용형이므로 맞는 표기이다.
4번: O. '있었던바'의 '바'는 앞의 사실을 근거로 뒤 내용을 잇는 연결 어미 '-ㄴ바'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찾아야'도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데', '지', '바'처럼 소리가 익숙한 형식은 모두 띄어 쓴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은 의존 명사인지 어미인지,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는지까지 구분하지 않으면 1번이나 3번을 맞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제 되는 말이 '일, 것, 경우'로 바뀌는 의존 명사인지 확인한다. 그렇게 바뀌면 띄어 쓰고, 문장을 이어 주는 어미이면 붙여 쓴다. 그다음 사전에 한 단어로 굳은 말인지 확인하면 '쓸데없다', '알아보다' 같은 표현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데·지'는 뜻이 살아 있으면 띄어 쓰고 어미이면 붙여 쓴다. '쓸데없다·알아보다·-ㄴ바'는 붙여 쓰는 쪽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나는 우리 회사의 장래를 너에게 걸었다.

① 이 작가는 이번 작품에 생애를 걸었다.
②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에 승부를 걸었다.
③ 마지막 전투에 주저 없이 목숨을 걸었다.
④ 그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걸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동사 '걸다'라도 목적어와 문맥에 따라 '성패나 미래를 맡기다', '삶을 바치다', '위험을 무릅쓰다'처럼 뜻이 달라진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장래를 걸다'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미래의 성패를 맡기고 기대를 건다는 뜻이다.
'승부를 걸다'도 성패를 특정 대상에 걸고 결단한다는 뜻이어서 의미축이 가장 가깝다.
'생애를 걸다'는 한평생을 바친다는 뜻이고, '목숨을 걸다'와 '직위를 걸다'는 잃을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이번 작품에 생애를 걸었다'는 자신의 삶 전체를 작품에 바쳤다는 뜻이다.
틀린 부분은 '생애'이다. 제시문의 '장래를 걸었다'는 미래의 성패를 상대에게 맡긴다는 뜻이므로, 올바르게는 '회사의 미래나 성패를 너에게 맡겼다'에 가깝다.

2번 O
'첨단 산업에 승부를 걸었다'는 성패를 그 분야에 걸고 결단했다는 뜻이다.
제시문의 '우리 회사의 장래를 너에게 걸었다'도 회사의 미래를 너에게 맡기고 기대를 건다는 뜻이므로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깝다.

3번 X
'마지막 전투에 주저 없이 목숨을 걸었다'는 죽을 위험을 무릅썼다는 뜻이다.
틀린 부분은 '목숨'이다. 제시문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뜻이 아니라 미래의 성패를 상대에게 맡긴다는 뜻이므로, 올바르게는 '성패를 걸었다'는 계열의 의미이다.

4번 X
'자신의 직위를 걸었다'는 직위를 잃을 위험을 감수했다는 뜻이다.
틀린 부분은 '직위'이다. 제시문은 어떤 지위를 담보로 내놓는 뜻이 아니라 회사의 앞날을 특정 인물에게 의지한다는 뜻이므로, 올바르게는 '장래나 승부를 걸었다'는 의미이다.

오답 포인트

'걸다'가 모두 강한 결단처럼 보여 1번, 3번, 4번도 비슷하다고 느끼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결단의 강도가 아니라 무엇을 목적어로 삼아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생애'는 헌신, '목숨·직위'는 위험 감수, '장래·승부'는 성패를 맡김이라는 차이를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의어 문맥 문제는 동사만 보지 않고 목적어를 먼저 본다. '장래·승부·운명'처럼 성패와 미래를 나타내면 맡김이나 기대의 뜻으로, '목숨·재산·직위'처럼 잃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내면 위험 감수의 뜻으로, '생애·일생'처럼 삶 전체를 나타내면 헌신의 뜻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장래·승부를 걸다=성패를 맡기다, 생애를 걸다=삶을 바치다, 목숨·직위를 걸다=위험을 무릅쓰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한국어의 피동 표현 중 '-어/아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것은 연결어미 '-어/아'에 보조 동사 '지다'가 결합된 통사적 구성으로 통사적 피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어/아지다'가 피동의 의미보다는 '-게 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 어떠어떠한 상태로 된다는 과정화의 의미가 더 강할 때가 있다.

① 이 책이 잘 읽혀진다.

② 방에 우유가 쏟아졌다.

③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

④ 이 연필은 글씨가 잘 써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어/아지다'가 피동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게 되다'와 비슷한 과정화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문제의 핵심은 '-어/아지다'가 붙었다는 형태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문맥에서 무엇을 뜻하는지이다.
피동이면 다른 힘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는 뜻이 살아 있어야 한다.
과정화이면 어떤 상태로 되어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경향이 드러나야 한다.

핵심 개념

과정화는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로 되어 가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아지다'가 문맥상 '-게 되다'로 자연스럽게 바뀌면 피동보다 과정화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적용 기준

선지를 볼 때 '누가 무엇을 당했는가'가 드러나면 피동에 가깝다.
반대로 '어떤 상태가 되다'나 '그렇게 되다'로 바꾸어도 자연스러우면 과정화에 가깝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이 책이 잘 읽혀진다'는 과정화가 아니라 피동 표현에 가깝다. 특히 '읽히다'에 다시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이어서 자연스럽지 않다. 틀린 표현은 '읽혀진다'이고, 올바르게는 '이 책이 잘 읽힌다'이다.
② X. '방에 우유가 쏟아졌다'는 우유가 쏟아진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통사적 피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른 힘에 의해 일이 벌어진 뜻이 살아 있으므로 과정화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이 선지의 잘못된 판단은 '과정화의 사례'라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통사적 피동의 사례'이다.
③ O.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의 '가지지'는 문맥상 '그 가게에 잘 가게 되지 않아요'로 바꾸어도 뜻이 통한다. 남의 힘에 의해 가게 되는 피동이라기보다, 그 가게에 가는 상태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과정화의 의미가 강하다.
④ X. '이 연필은 글씨가 잘 써진다'는 연필로 글씨가 잘 써지는 성질을 말하는 통사적 피동이다. 어떤 상태로 되어 간다는 과정화보다는 '글씨가 써지다'라는 피동의 뜻이 중심이다. 이 선지의 잘못된 판단은 '과정화의 사례'라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통사적 피동의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어/아지다'라는 형태만 보고 모두 과정화로 묶으면 오답이 된다. 이 문제에서는 형태가 비슷해도 실제 의미가 피동인지, '-게 되다'로 바꾸어도 자연스러운 과정화인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어/아지다'를 보면 먼저 그 표현을 '-게 되다'로 바꾸어 본다. 바꾸어도 자연스럽고 상태 변화의 뜻이 살아 있으면 과정화이고, 다른 힘에 의해 행위를 당하는 뜻이 중심이면 피동이다.

암기 포인트

'-어/아지다'는 형태보다 의미를 본다. '-게 되다'로 자연스럽게 바뀌면 과정화일 가능성이 크다.

NoteBase

문 9. ㉠에 해당하는 것과 ㉡에 해당하는 것을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짝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 집에 당장 쓰러져 가는 행랑채가 세 칸이나 되어 할 수 없이 전부 수리하였다. 그중 두 칸은 이전 장마에 비가 새면서 기울어진 지 오래된 것을 알고도 이리저리 미루고 수리하지 못한 것이고 한 칸은 한 번 비가 새자 곧 기와를 바꿨던 것이다. 이번 수리할 때에 기울어진 지 오래였던 두 칸은 들보와 서까래들이 다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게 되어 수리하는 비용도 더 들었으나, 비가 한 번 새었던 한 칸은 재목이 다 성하여 다시 썼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었다. 나는 ㉠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도 있는 일이다. 자기 과오를 알고 곧 고치지 않으면 나무가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는 것과 같고, 과오를 알고 고치기를 서슴지 않으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되기 어렵지 않으니 집 재목을 다시 쓰는 이로움과 같은 것이다. 다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심하여도 그럭저럭 지내고 고치지 않다가 백성이 떠나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 뒤에는 갑자기 고치려고 해도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

① ㉠: 기와를 바꾸다, ㉡: 과오를 고치다

② ㉠: 미루고 수리하지 않다, ㉡: 과오를 알고도 곧 고치지 않다

③ ㉠: 들보와 서까래가 다 썩다, ㉡: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

④ ㉠: 비가 새서 기울어진 상태, ㉡: 자기 과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집 수리의 구체적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인간·정치의 교훈이 문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은 비가 새고 기울어진 집을 수리한 구체적 경험이다. 오래 방치하면 들보와 서까래가 썩어 다시 쓰지 못하고, 곧 고치면 재목을 다시 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은 그 경험에서 끌어낸 교훈이다. 사람의 과오나 나라의 정치도 잘못을 초기에 고치면 회복이 쉽고, 방치하면 수습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기와를 바꾸다'는 비가 한 번 새자 곧 손본 경우이므로 ㉠의 구체적 사례이다.
- 이는 ㉡의 '과오를 고치다'와 대응한다. 둘 다 초기에 바로잡아 다시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② O
- '미루고 수리하지 않다'는 기울어진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 이는 ㉡의 '과오를 알고도 곧 고치지 않다'와 대응한다. 둘 다 문제를 인식하고도 방치하여 더 큰 손상을 부른다는 뜻이다.

③ X
- '들보와 서까래가 다 썩다'는 오래 방치한 결과 회복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를 뜻한다.
- 그러나 이를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로 짝지은 것은 문맥을 지나치게 극단화한 것이다. 지문은 나라가 위태롭게 된 뒤에는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였지, 아예 방도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 틀린 표현은 '방도가 없다'이다. 올바르게는 '나라를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는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 수습이 어렵다'이다.

④ O
- '비가 새서 기울어진 상태'는 집에 생긴 결함 자체를 가리키므로 ㉠의 문제 상황이다.
- 이는 사람에게서의 '자기 과오'와 대응한다. 둘 다 초기에 발견하고 고쳐야 할 잘못이라는 점에서 문맥상 자연스럽다.

오답 포인트

③은 대응 자체보다 표현의 강도를 잘못 잡으면 틀리기 쉽다. 지문은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했는데 선지는 이를 '방도가 없다'로 바꾸어 불가능의 뜻으로 과장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유 문제는 낱말을 기계적으로 짝짓지 않고 '문제 발생-방치 또는 즉시 수습-결과'의 흐름으로 대응시켜야 한다. 또한 지문이 '어렵다'고 한 것을 선지가 '불가능하다'로 바꾸면 극단화된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집도 과오도 정사도 초기에 고치면 회복되고, 오래 방치하면 수습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0. ㉠ ~ ㉣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사는 집 이름을 사우재(四友齋)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벗하는 이가 셋이고 거기에 또 내가 끼니, 합하여 벗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세 벗은 오늘날 생존해 있는 선비가 아니고 지금은 세상에 없는 옛 선비들이다. 나는 원래 세상일에 관심이 없는 데다가 또 ㉠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꾸짖고 떼를 지어 배척하므로, ㉡ 집에는 찾아오는 이가 없고 밖에 나가도 찾아갈 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탄식했다.

"벗은 오륜(五倫)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데 나만 홀로 벗이 없으니 어찌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생각해 보았다. ㉢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사귀려 들지 않으니 어디서 벗을 찾을 것인가. 할 수 없이 ㉣ 옛 사람들 중에서 사귈 만한 이를 가려내서 벗으로 삼으리라고 마음먹었다.

① ㉠: 傍若無人
② ㉡: 左顧右眄
③ ㉢: 不恥下問
④ ㉣: 後生可畏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주어진 상황의 핵심 의미를 파악하여 알맞은 한자성어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화자는 세상일에 관심이 적고 성격도 제멋대로여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집에는 찾아오는 이가 없고 밖에 나가도 찾아갈 곳이 없어 현실의 교유가 끊긴 상태이다.
결국 동시대 사람들에게서 벗을 구하지 못해 옛사람 가운데 사귈 만한 이를 골라 벗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핵심 개념

방약무인은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태도이다.
사례형 문제에서는 밑줄 친 상황의 중심 뜻이 성격인지, 처지인지, 행동 방식인지부터 구분한 뒤 한자성어의 핵심 뜻과 대조해야 한다.

NoteBase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각 밑줄 부분이 드러내는 의미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은 성격과 태도, ㉡은 고립된 처지, ㉢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상황, ㉣은 옛사람을 벗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리킨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성격이 제멋대로"는 방약무인과 잘 맞는다. 방약무인은 남이 옆에 없는 것처럼 함부로 구는 태도를 뜻하므로 성격 설명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② X: 좌고우면은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태도를 이른다. ㉡은 눈치를 보는 태도가 아니라 찾아오는 이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는 고립된 처지이다. 틀린 연결은 "㉡=좌고우면"이고, 올바르게는 "㉡은 왕래가 끊긴 외로운 상황"이다.
③ X: 불치하문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움을 구하는 태도이다. ㉢은 배움을 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가까이하지 않아 벗을 얻지 못하는 처지이다. 틀린 연결은 "㉢=불치하문"이고, 올바르게는 "㉢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벗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④ X: 후생가외는 젊은 후배나 뒤에 난 사람이 두려울 만큼 훌륭하게 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은 후배의 장래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옛사람 가운데 사귈 만한 이를 골라 벗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틀린 연결은 "㉣=후생가외"이고, 올바르게는 "㉣은 옛사람을 벗으로 삼는 상우고인에 가까운 상황"이다.

오답 포인트

한자성어 문제는 글의 분위기만 보고 비슷한 말을 찍으면 틀리기 쉽다. ㉡을 보고 막연히 바깥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좌고우면으로 흐르고, ㉣을 보고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만 잡으면 후생가외로 오해하게 된다. 밑줄 부분이 드러내는 핵심 의미를 먼저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 한자성어를 적용하는 문제는 밑줄 부분을 성격, 처지, 행동, 대상 중 무엇을 설명하는지 먼저 나눈다.
그다음 각 성어의 핵심 뜻을 한 줄로 떠올려 1대1로 대조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방약무인=남을 없는 듯 제멋대로, 좌고우면=눈치만 보며 결단 못함, 불치하문=아랫사람에게도 배움,
후생가외=젊은 후배의 앞날이 두려울 만큼 큼.

NoteBase

문 11.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 용의자의 용모를 파악하기 위해 눈, 코, 입 등 얼굴 각 부분의 인상을 조립하면 하나의 얼굴 사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몽타주 사진이라고 부른다. 몽타주는 '조립'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므로 몽타주 사진을 '조립된 사진'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다. 이처럼 몽타주에서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인상을 창조한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몽타주의 효과를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위해 사용해 왔다. 몽타주 효과는 특히 영화에서 자주 응용되며, 몽타주에 관한 이론은 영화 이론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 이유는 영화 자체가 몽타주에 의해 성립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따로따로 찍은 장면을 이어 붙이는 조립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슬픈 장면 뒤에 등장하는 무표정한 얼굴은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얼굴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라 해도 앞에 어떤 장면을 배치하는가에 따라 그 얼굴이 드러내는 감정은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몽타주를 통해 영화 특유의 시간 감각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속 침묵이 유난히 더 길게 느껴진다면, 이는 영화의 장면 조립을 통해 창조된 새로운 시간 감각 때문이다. 영화 이론가들은 이러한 영화 특유의 세계를 다루는 이론, 즉 조립에 의해 탄생하는 영화의 세계에 관한 이론을 몽타주 이론이라고 부른다.

① 몽타주 효과는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인상의 새로움을 의미한다.

② 동일한 장면이라 해도 그 배치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③ 몽타주 이론은 이어 붙인 장면들을 통해 창조되는 영화의 시간 감각을 다룬다.

④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하여 영상미를 창출함으로써 몽타주의 효과가 생겨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몽타주의 핵심이 개별 장면의 연기 실감이 아니라 이미지와 장면의 조합·배치에서 생기는 새로운 의미와 시간 감각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몽타주 효과는 각각의 이미지나 장면을 결합해 원래 없던 새로운 인상과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몽타주 이론은 이러한 조립을 통해 탄생하는 영화 특유의 세계와 시간 감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에서 몽타주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인상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인상의 새로움을 몽타주 효과로 본 ①은 적절하다.

② O
지문은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라도 앞에 어떤 장면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드러내는 감정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동일한 장면도 배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②는 지문과 일치한다.

③ O
지문은 영화의 장면 조립을 통해 새로운 시간 감각이 생기며, 영화 이론가들은 조립에 의해 탄생하는 영화의 세계에 관한 이론을 몽타주 이론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한다. 이어 붙인 장면들을 통해 창조되는 영화의 시간 감각을 몽타주 이론이 다룬다고 본 ③은 적절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하여'이다. 지문은 몽타주의 효과가 배우의 표정 연기 자체를 실감 나게 만드는 데서 생긴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장면과 이미지를 조립하고 배치할 때 새로운 인상과 감정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따로 찍은 장면들을 조립하고 배열하여 새로운 인상과 시간 감각을 창조함으로써 몽타주의 효과가 생겨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몽타주를 연기력이나 영상미를 강화하는 촬영 기법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지문은 한 장면의 실감보다 장면 사이의 결합 관계가 의미를 만든다고 설명하므로, 효과의 발생 원인을 '표정 연기'로 돌리면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몽타주 관련 선지는 '무엇을 사실적으로 찍었는가'보다 '어떻게 이어 붙이고 배치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미와 감정, 시간 감각이 장면 내부에서 생기는지 장면의 조합에서 생기는지를 구분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몽타주 = 장면의 조립이 새 인상, 새 감정, 새 시간 감각을 만든다.

NoteBase

문 12. 다음은 선조 28년 7월에 사헌부에서 올린 보고문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헌부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여러 대 태평을 누리는 동안 문물은 융성하고 교화의 도구는 남김없이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선비들은 예법으로 자신을 단속했고, 백성들은 충과 효에 스스로 힘썼습니다. 관혼상제의 법도는 옛날보다 못하지 않았고, 임금을 버리고 어버이를 무시하는 말은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윤리에 죄를 얻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난리[임진왜란]를 겪은 뒤로는 금방(禁防)이 크게 무너져 불온한 마음을 품는가 하면, 법도에 벗어나는 말을 외치기도 합니다. 오직 제 몸의 우환만 알고, 부모의 기른 은혜를 까맣게 잊은 나머지 저 들판과 진펄에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 버려져 있는가 하면, 상복을 입은 자가 고깃국을 먹는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식견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거늘, 무지한 이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인데, 그 어버이를 이처럼 박대한다면 의리를 따라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① 효를 실천하지 않는 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 리 없다.
②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장례 방식이 임진왜란 이후 생겨났다.
③ 전란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법도가 무시되고 있다.
④ 무지한 이들은 식견 있는 이들에 비해 윤리적 과오에 더 취약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헌부 보고문에서 전란 이전과 이후의 사회 모습을 대비해 읽고, 각 선지가 지문의 직접 진술인지 과장된 추론인지 가려내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임진왜란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구분해 읽는다.
2. 지문에 직접 나온 평가와 사례를 대응시킨다.
3. 선지가 지문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원문보다 과장했는지 판단한다.

핵심 근거

지문은 전란 이전에는 충과 효, 관혼상제의 법도, 교화가 유지되었다고 본다.
반면 전란 이후에는 금방이 무너지고, 부모의 은혜를 잊고, 시신이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등 법도와 윤리가 무너졌다고 본다.
또한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이 나온다고 하여 효와 충을 연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을 찾을 수 있고, 어버이를 박대하면 의리를 따라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효를 저버린 사람은 충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선지의 취지와 맞는다.

② X
지문은 임진왜란 이후에 시신이 들판과 진펄에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는 사회 혼란과 윤리 붕괴 때문에 장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새로운 장례 방식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장례 방식이 임진왜란 이후 생겨났다'이고, 올바르게는 '임진왜란 이후 사회 혼란으로 시신을 제대로 매장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이다.

③ O
임진왜란 이후 금방이 크게 무너져 법도에 벗어나는 말을 외치고, 부모의 은혜를 잊고, 장례 예법도 무너진다고 하였다. 전란 이후 중요한 법도가 무시된다는 진술로 볼 수 있다.

④ O
지문은 식견이 있는 사람도 고깃국 먹는 일을 가리지 않았다고 한 뒤, 무지한 이들은 더 심할 것이라고 말한다. 식견 있는 사람조차 윤리적 과오를 범한다면 무지한 이들이 그 과오에 더 취약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 버려져 있다'는 현실 묘사를 '매장하지 않는 장례 방식이 생겼다'는 제도 설명으로 바꿔 버린 것이 함정이다. 지문은 풍습의 성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란 이후 예법이 무너진 상황을 한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상가나 상소문류 지문에서는 원인의 비판인지 제도의 설명인지 먼저 구분한다. 지문이 어떤 현상을 부정적으로 개탄하면 그 현상을 새로운 규범이나 장례 방식으로 일반화한 선지는 의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전란 이후의 무질서 비판은 풍습 소개가 아니라 예법 붕괴의 탄식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약용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들의 절용(節用), 즉 아껴 쓰기를 강조했다. 다산이 말한 절용은 듣기에는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자기 돈은 절용하기 쉽지만 정부 돈은 함부로 쓰기 십상이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절용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내가 오랫동안 귀양 살면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 줄 재산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글자 두 자를 유산으로 남겨 준다. 하나는 근(勤)이요, 하나는 검(儉)이다. 너희가 근검 두 글자를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논 100마지기 200마지기보다 좋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고 자애로운 것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니, 다산은 백성을 통치하려면 먼저 절용에 힘쓰라고 말한 것이다. 다산이 말한 청심(淸心)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직자의 기본이다.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산은 청렴이 천하의 큰 장사라 말했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일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청렴한 사람이 진짜 욕심쟁이라고 했다.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려는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다산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이유를 지혜가 모자란 데서 찾았다. 다산의 청렴 사상은 '청렴한 사람은 청렴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廉者安廉 知者利廉)는 말로 요약된다. 공자는 목표가 인(仁)인 반면 다산은 목표가 청렴이었다. 인은 너무 높은 성현의 이야기이므로 일반인이 인의 경지에 이르기 힘드니 한 단계 낮추어 청렴을 이야기한 것이다.

① 공직자들은 금품과 선물을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주고받아야 한다.

② 관리들이 청렴하고 자애로우면 백성들이 인을 이룰 수 있게 된다.

③ 자손에게 물질적 재산을 남겨 주는 공직자는 청렴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지혜로운 관리는 청렴함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약용의 절용·청렴 사상과 "지자는 이렴"이라는 말의 뜻을 지문에서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정약용은 공직자의 핵심 덕목을 절용과 청렴으로 보았다.
절용은 공적 재물을 아껴 쓰는 태도이고, 청렴은 대가성이 없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더라도 사사로운 돈을 받지 않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또한 정약용은 "염자는 안렴 지자는 이렴"이라고 하여, 청렴한 사람은 청렴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함이 결국 자신에게 이롭다는 점을 안다고 보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주고받아야 한다"는 표현이다. 지문에서는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더라도 작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올바르게는 공직자는 금품을 한도 내에서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사로운 금전 수수를 경계해야 하는 존재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백성들이 인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표현이다. 지문은 관리가 청렴하고 자애로워야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할 뿐, 백성들이 인을 이룬다고까지 말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관리가 청렴하고 자애로우면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물질적 재산을 남겨 주는 공직자는 청렴하다고 할 수 없다"는 단정이다. 지문에서 정약용은 자신이 자손에게 남길 재산이 없고 근검과 검 두 글자를 유산으로 남긴다고 했지만, 이것이 곧 물질적 재산을 남기면 모두 불청렴하다는 일반 명제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손에게 물질보다 근검과 청렴의 가치를 남기는 삶을 더 중시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④ O. 지문에 "청렴한 사람은 청렴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하였고, 또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혜로운 관리는 청렴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는다고 본다는 진술은 지문과 맞는다.

오답 포인트

①은 현실의 법정 한도라는 상식을 끌어들여 지문 바깥 내용을 섞게 만든 선지이다. ②는 공자의 인과 정약용의 청렴을 뒤섞은 선지이고, ③은 정약용 개인의 삶의 태도를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절대 기준으로 과장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상 추론 문제는 지문 속 핵심 문장을 먼저 잡고 선지가 그 문장을 좁히는지 넓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 문항에서는 "지자는 이렴"과 "작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가 판단 기준이 된다.

암기 포인트

정약용은 절용과 청렴을 공직자의 핵심으로 보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청렴이 결국 이익이 된다고 본다.

NoteBase

문 14.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썻썻 常 평홀 平 통홀 通 보뷔 寶字
> 구멍은 네모지고 四面이 둥그러셔 썩ᄃᆡ글 구으러 간 곳마ᄃᆞ
> 반기ᄂᆞᆫ고나
> 엇더타 죠고만 金죠각을 두챵이 닷토거니 나ᄂᆞᆫ 아니 죠해라

① 조선 후기의 첨예한 신분 갈등이 제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② 의인화된 제재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③ 제재에 대한 일반적 반응과 시적 화자의 반응이 대조되고 있다.

④ 화자의 심화된 내적 갈등을 보여 주기 위해 대립적 성격의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조의 제재인 돈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화자의 인식을 어떻게 대비해 드러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조는 서로 다른 태도나 성격을 맞세워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 작품에서는 돈을 "간 곳마다 반기는" 일반적 반응과 "나는 아니 좋혜라"라는 화자의 반응이 맞세워진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말하는 존재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작품은 돈의 모양과 효용을 설명할 뿐 돈과 대화하지는 않는다.
내적 갈등은 화자 마음속에서 상반된 욕구나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 작품의 초점은 내면 충돌보다 돈을 둘러싼 사회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조선 후기의 첨예한 신분 갈등"이다. 이 작품은 상평통보라는 돈의 속성과 위력을 말하면서 돈 때문에 다투는 세태를 비판할 뿐, 신분 갈등을 직접 제재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돈에 좌우되는 세태와 물질적 가치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고 보아야 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의인화된 제재와 대화하는 형식"이다. 화자는 돈의 생김새와 효용, 폐해를 서술하고 평가할 뿐 돈과 문답을 주고받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제재를 관찰하고 논평하는 형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O: "간 곳마다 반기는고나"에서 돈을 반기는 일반적 태도가 제시되고, "나는 아니 좋헤라"에서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 화자의 태도가 제시된다. 제재에 대한 일반적 반응과 시적 화자의 반응이 뚜렷이 대조된다.
④ X: 틀린 부분은 "심화된 내적 갈등"과 "대립적 성격의 소재"이다. 이 작품에는 서로 맞서는 두 소재가 중심에 놓이지 않으며, 화자의 마음속 갈등이 전개되지도 않는다. 올바르게는 하나의 제재인 돈을 두고 사회 일반과 화자의 인식을 대비해 주제를 드러낸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작품의 풍자성을 보고 사회 비판 전반으로 넓혀 읽으면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이 시조의 비판 대상은 신분 갈등이 아니라 돈을 좇는 세태이다. ②는 돈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인법이나 대화체로 오해하기 쉽고, ④는 부정적 정서를 곧바로 내적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기 쉬운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의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화자가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작품 속 다른 태도와 대비되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의인, 대화, 내적 갈등처럼 자주 나오는 개념은 실제로 말 건넴이나 심리 충돌이 있는지 작품 속 표현으로 대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평통보 시조는 돈의 효용 설명이 아니라 돈을 반기는 세태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화자의 태도 대비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5. ㉠ ~ ㉣ 중 한자의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프레젠테이션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陳述하는 말하기를 가리킨다. 프레젠테이션은 조사한 내용을 ㉡設明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고하는 등 정보 공유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핵심적인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制視하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정확한 표기를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진술(陳述)은 생각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설명(說明)은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밝히는 것이다. 사용(使用)은 어떤 도구나 방법을 써서 활용하는 것이고, 제시(提示)는 의견이나 자료를 내놓아 보여 주는 것이다.
같은 음으로 읽히더라도 뜻이 다르면 한자 표기도 달라지므로 문맥에 맞는 의미를 먼저 잡아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진술은 陳述이 맞다. 그러나 ㄴ은 지문에 '設明'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 設은 '베풀 설'이라 뜻이 맞지 않는다. 설명은 내용을 말로 밝힌다는 뜻이므로 '말씀 설(說)'을 써서 說明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ㄴ은 틀렸다.

② O
ㄱ의 진술은 陳述이 맞다. ㄷ의 사용은 어떤 수단을 써서 활용한다는 뜻이므로 使用이 맞다. 따라서 ㄱ, ㄷ만 옳다는 ②가 정답이다.

③ X
ㄴ의 '設明'은 設(베풀 설)이 뜻에 맞지 않아 틀린 표기이고 說明이 옳다. ㄹ의 '制視' 역시 制(억제할 제)와 視(볼 시)로 이루어져 뜻이 맞지 않는 틀린 표기이며, 핵심 정보를 내놓아 보여 준다는 뜻에서는 '끌어낼 제(提)'와 '보일 시(示)'를 쓴 提示가 옳다. 따라서 ㄴ, ㄹ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X
ㄷ의 使用은 맞지만 ㄹ의 '制視'는 틀렸다. '제시하다'는 의견이나 자료를 내보여 주는 뜻이므로 提示로 써야 한다. 制視는 억제(制)와 봄(視)의 결합이라 '제시'의 뜻과 어긋난다.

오답 포인트

한자어 문제에서는 음만 비슷하게 떠올리고 글자를 고르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ㄴ에 '設明', ㄹ에 '制視'처럼 음은 같지만 뜻이 어긋나는 한자를 넣어 함정을 두었다. 說明과 提示가 옳다는 것을 뜻으로 확인해야 오답을 피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우리말 뜻을 문맥으로 확인한 뒤, 그 뜻에 맞는 대표 한자어를 연결해 판단하면 된다. '설명=밝힐 명(明)', '제시=보일 시(示)'처럼 핵심 글자를 뜻과 함께 묶어 보면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진술은 陳述, 설명은 說明, 사용은 使用, 제시는 提示이다.

NoteBase

문 16. 밑줄 친 부분을 고유어로 바꿀 때 적절한 것은?

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 바라는

② 우리는 연 3%의 연체 이자를 납부합니다. → 에누리를

③ 부서의 현재 상황을 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헤아려

④ 오늘 경기가 취소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알려 주시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한자어를 뜻이 통하는 고유어로 바꿀 때, 낱말의 사전적 의미와 문장 속 쓰임을 함께 맞추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기(所期)는 마음속에 바라던 바를 뜻하므로 고유어로는 '바라는' 정도로 바꿀 수 있다.
이자는 돈을 빌리거나 맡긴 대가로 붙는 돈이고, 에누리는 값을 깎아 주는 일이다.
상신하다는 윗사람에게 말씀을 올리거나 보고하는 뜻이고, 양지하다는 사정을 알아 두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밑줄 친 말이 '소기'라면 뜻은 '바라던 바'이다. 따라서 '바라는'으로 바꾸면 의미가 이어진다.
② X: 틀린 부분은 '이자 → 에누리'이다. 이자는 돈의 사용 대가이고 에누리는 값의 할인이다. 올바르게는 '이자 → 길미'처럼 바꾸어야 뜻이 맞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상신하여 → 헤아려'이다. 상신하다는 윗사람에게 보고하거나 말씀드리는 뜻인데, 헤아리다는 생각하거나 수를 세는 뜻이다. 올바르게는 '상신하여 → 말씀드려'처럼 윗사람에게 알리는 뜻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양지하시기 → 알려 주시기'이다. 양지하다는 듣는 쪽이 알아 두는 뜻인데, 알려 주다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하는 뜻이라 방향이 뒤바뀐다. 올바르게는 '양지하시기 → 알아 두시기'처럼 바꾸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비슷하게 일상에서 쓰이는 경제 관련 말이라는 점 때문에, ③은 공손한 말투라는 점 때문에, ④는 '알다'와 '알리다'를 헷갈리기 때문에 틀리기 쉽다. 특히 ④는 주체와 대상의 방향이 바뀐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꿀 때는 먼저 원래 낱말의 뜻을 짚고, 그다음 바꾼 말이 문장 안에서 같은 대상과 같은 방향으로 쓰이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기=바라던 바, 이자=길미, 양지하다=알아 두다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17.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 혹독한 6·25의 경험 속의 공포의 전짓불(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해 쓴 일이 있다), 그 비정한 전짓불빛 앞에 나는 도대체 어떤 변신이나 사라짐이 가능했을 것인가. 앞에 선 사람의 정체를 감춘 채 전짓불은 일방적으로 '너는 누구 편이냐'고 운명을 판가름할 대답을 강요한다. 그 앞에선 물론 어떤 변신도 사라짐도 불가능하다. 대답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대답이 빗나간 편을 잘못 맞췄을 땐 그 당장에 제 목숨이 달아난다. 불빛 뒤의 상대방이 어느 편인지를 알면 대답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것을 알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을 기준하여 안전한 대답을 선택할 수가 없다. 길은 다만 한 가지. 그 대답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근거로 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제 목숨을 건 자기 진실의 드러냄인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 이청준, 「전짓불 앞의 방백」 —

(나) 한데 요즘 나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은 전짓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한 작가의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데 나는 지금 어떤 전짓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말이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 이청준, 「소문의 벽」 —

① (나)와 달리 (가)는, 경험에서 파생된 상징적 장치를 적용하여 사태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② (가)와 달리 (나)는, 이념적 대립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는 인물의 고통을 낱낱이 진술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상호적 소통의 여지가 가로막힌 상황의 공포를 다룸으로써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고립된 채 두려움에 떠는 인물의 행동을 극화함으로써 공통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두 글이 공통으로 드러내는 상황의 성격과 표현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전짓불 앞에서 어느 편인지 답해야 하는 일방적 상황을 통해 자기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공포를 말한 글이다.
(나)는 소설 쓰기를 얼굴 없는 전짓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진술을 하는 일에 비유한 글이다.
두 글의 공통 축은 상호적 소통이 차단된 채 자기만 말해야 하는 상황의 공포이며, 차이 축은 그 전짓불의 적용 대상이 실제 체험이냐 문학 행위냐에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6·25의 체험에서 나온 전짓불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지만, (나)도 그 전짓불의 비유를 소설 작업에 적용하고 있다. 틀린 부분은 '(나)와 달리'이며, 올바르게는 '두 글 모두 전짓불이라는 비유적 장치를 활용한다'이다.
② X
(나)는 이념적 대립으로 자유를 억압당하는 인물의 고통을 서술한 글이 아니다. 작가가 소설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일방적 자기 진술의 공포를 말한 글이다. 틀린 부분은 '이념적 대립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는 인물의 고통'이며, 올바르게는 '문학 행위의 일방성과 그에 따른 공포'이다.
③ O
(가)는 상대를 알 수 없는 채 답변을 강요받는 상황의 공포를 말하고, (나)는 소설 쓰기가 얼굴 보이지 않는 전짓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일과 같다고 본다. 두 글 모두 상호적 소통의 여지가 차단된 일방적 상황의 공포를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공유한다.
④ X
두 글 모두 공포를 드러내지만, 인물의 행동을 극적으로 재현하여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은 아니다. 핵심은 행동의 극화가 아니라 상황의 성찰적 진술이다. 틀린 부분은 '행동을 극화함으로써'이며, 올바르게는 '일방적 자기 진술이 강요되는 상황을 성찰적으로 드러냄으로써'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가)에만 상징 장치가 있고 (나)는 단순한 소설 창작 고백이라고 보면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나)도 전짓불의 비유를 그대로 끌어와 의미를 확장한다. ④는 두 글의 공포 정서만 보고 서술 방식을 '행동의 극화'로 일반화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교형 독해에서는 각 글의 중심 상황을 먼저 한 줄씩 요약한 뒤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누어 본다. 이후 선지의 핵심어인 '와 달리', '공유하고 있다', '행동을 극화'가 실제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맞는지 대조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전짓불의 핵심은 '일방적 질문과 자기 진술의 공포'이며, 두 글의 공통점은 공포의 구조이고 차이점은 적용 대상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들은 특정 소리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휘 목록 속에서 어떻게 의도된 단어에 접속하여 그 의미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일까? 즉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와 다른 모든 단어들이 구별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어떻게 해당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마슬렌-윌슨(Marslen-Wilson)은 어떤 단어를 듣고 인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어야 비로소 어떤 단어가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slander'는 /d/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며,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slant'와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의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금고를 열기 위한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 숫자 조합 자물쇠의 회전판을 올바른 순서로 회전시킬 때, 모든 숫자를 끝까지 회전시키지 않고도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소리 연속체를 요구하는 신경 회로들은 진행 중인(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소리의 연속체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slan/은 'slander'와 'slant'에 관련되는 신경 회로들 전부를 활성화할 것이다.

①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에, 청각 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가 접속하여 의미가 활성화된다.

② 'slander'와 'slant'의 의미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③ 어떤 단어를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선택하여 발화하는 과정은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④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 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청각 입력이 머릿속 어휘 항목에 접속해 의미를 활성화하는 과정과, 단어가 다른 후보들과 구별되는 지점에서 인식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휘 접속은 들은 소리가 머릿속 어휘 항목에 닿는 과정이고, 활성화는 그 항목의 의미와 관련 신경 회로가 작동하는 과정이다.
단어 인식은 그 단어가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며, 끝소리까지 모두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행 중인 소리 연속체도 관련 후보들을 함께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구별 이전에는 여러 단어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은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의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고 설명한다. 선지의 '접속하여 의미가 활성화된다'는 내용이 지문과 일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표현이다. 지문은 'slander'가 /d/를 들었을 때처럼 다른 후보와 구별되는 지점에 이르면 인식된다고 설명하므로, 올바르게는 '다른 후보와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으면 된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선택하여 발화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이다. 지문은 단어를 듣고 인식하는 과정과 그 활성화를 숫자 조합 자물쇠에 비유했을 뿐, 머릿속 단어를 골라 말로 내는 발화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듣고 인식하는 과정은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지문은 진행 중인 소리 연속체만으로도 관련 신경 회로가 활성화될 수 있고, /slan/만으로도 'slander'와 'slant' 관련 회로가 모두 활성화된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구별되기 전에도 관련 회로들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비로소'를 '끝까지'로 과장하면 틀리기 쉽고, ③은 지문이 다루는 '듣기·인식'을 '선택·발화'로 바꿔 놓은 점이 함정이다. ④는 구별 이전에도 후보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을 거꾸로 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런 지문은 먼저 대상이 입력의 인식 과정인지 출력의 발화 과정인지 구분한다. 이어서 '끝까지', '반드시', '활성화되지 않는다'처럼 지문의 조건을 더 강하게 바꾼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면 오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단어 인식은 끝까지가 아니라 구별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구별 전에는 관련 후보들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다.

NoteBase

문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千世 우희 미리 定ᄒᆞ샨 漢水 北에 ㉠ 累仁開國ᄒᆞ샤 卜年이 ᄀᆞᆺ 업스시니
聖神이 니ᅀᅳ샤도 ㉡ 敬天勤民ᄒᆞ샤ᅀᅡ 더욱 구드시리이다
㉢ 님금하 ㉣ 아ᄅᆞ쇼셔 洛水예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① ㄱ에서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된 형태로, 현대국어의 '-시어'에 대응된다.
② ㄴ에서 '-☒'는 선행하는 활용형과 결합하여 그 뜻을 강조하는 조사로, 현대국어의 '-서'에 대응된다.
③ ㄷ에서 '-하'는 높임을 받는 대상에 쓰는 호격 조사로, 현대국어의 '-이시여'에 대응된다.
④ ㄹ에서 '-쇼셔'는 청자를 높여 주며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현대국어의 '-십시오'에 대응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세 국어의 높임 선어말어미, 강세 보조사, 호격 조사, 명령형 종결어미의 기능과 현대국어 대응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 연결어미 -아가 결합한 형태로 현대국어의 -시어에 대응한다.
㉡의 -ᅀᅡ는 반치음 ㅿ이 쓰인 중세 국어의 강세(强勢) 보조사로, 앞의 활용형 하샤(하시어)에 붙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조건·필요의 뜻을 더하며, 현대국어의 보조사 -야에 대응한다(경천근민하셔야).
-하는 높임의 대상인 청자를 부를 때 쓰는 존칭 호격 조사이다.
-쇼셔는 청자를 높이면서 명령을 나타내는 상대 높임의 종결어미로 현대국어의 -십시오에 대응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샤는 -시-와 -아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주체 높임과 연결 기능이 함께 나타난다. 현대국어로 옮기면 누인개국하시어의 -시어에 해당한다.
② X: ㉡의 밑줄 부분 ᅀᅡ(반치음 ㅿ)는 중세 국어의 강세 보조사로, 앞의 활용형 하샤(하시어)에 붙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조건·필요의 뜻을 더한다. 이를 조사로 본 품사 판단 자체는 맞지만, 현대국어의 -서에 대응된다고 한 것이 틀렸다. 이 보조사는 현대국어의 보조사 -야에 대응하므로 敬天勤民ᄒᆞ샤ᅀᅡ는 경천근민하셔야로 옮겨진다. 대응형을 -서라고 한 점에서 ②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③ O: ㉢의 -하는 님금을 직접 부르며 높이는 존칭 호격 조사이다. 현대국어에서 대응하는 -이시여는 서술격 조사(지정사) 이-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 호격 조사 -여가 어울려 굳어진 높임 호격 표현으로, 높임의 대상을 부른다는 기능이 -하와 일치하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④ O: ㉣의 -쇼셔는 청자를 높이며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아ᄅᆞ쇼셔는 현대국어로 아십시오에 가까우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의 ᅀᅡ는 글자 모양이 낯설어 현대어 -서처럼 오인하기 쉽지만, 문맥은 경천근민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이므로 뒤 절의 조건이 된다. 강세 보조사 ᅀᅡ는 현대국어의 보조사 -야에 대응하므로, 이를 -서로 옮긴 ②가 틀린 선지이다. 중세 국어의 특수 표기를 현대국어 형태와 성급히 대응시키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세 국어 형태소는 먼저 문장 속 기능을 본다. 앞말과 뒤 절을 이어 조건을 만들면 연결 기능이고, 활용형 뒤에 붙어 강세·조건의 뜻을 더하면 보조사이며, 사람을 부르면 호격 조사이고, 문장을 끝맺으며 명령하면 종결어미이다. 그다음 현대국어 대응형을 붙여 보면 선지의 옳고 그름을 안정적으로 가릴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샤는 -시어, 강세 보조사 -ᅀᅡ는 -야(하셔야), -하는 존칭 호격, -쇼셔는 -십시오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 믿음의 체계는 허구를 기초로 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 물론 이 말은 스스로 허구라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허구임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서 구성된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사실임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아니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된 지식인지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 세계는 저러한 두 가지 체계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뒤엉켜 있다. 그러므로 의식 세계에서 사실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를 확실하게 구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① 믿음의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인간의 의식 공간에 구성한 것이다.

②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그가 사실로 수긍한 것이다.

③ 검증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④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실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를 가르는 기준이 객관적 검증 여부인지, 개인이 사실로 받아들이는지인지를 함께 파악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실의 체계: 검증된 지식이 의식 공간에서 사실로 자리 잡아 이루는 체계이다. 결정 차이축은 객관적 검증 여부이다. 키워드는 검증된 지식이다.
믿음의 체계: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의식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 이루는 체계이다. 결정 차이축은 객관적 미검증과 개인 내부의 사실 인정이다. 키워드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다.
핵심 대비: 두 체계 모두 그 사람의 의식 안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사실의 체계는 검증된 지식이고 믿음의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는 점에서 갈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 첫머리에서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직접 말한다. 1번은 믿음의 체계의 재료를 그대로 옮긴 진술이다.

② O
지문은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라도 그 체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허구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 지식은 의식 공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③ O
지문은 하나하나의 지식은 검증된 지식인지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의식 세계에서는 사실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가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3번은 이 전체 의식 세계의 혼재 상태를 옮긴 진술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이다.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 구성되는 것은 믿음의 체계이지 사실의 체계가 아니다. 사실의 체계는 검증된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올바르게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그 사람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와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를 같은 뜻으로 섞어 읽게 만드는 데 있다. ④는 개인의 사실 인정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곧바로 사실의 체계로 넘어간다고 바꾸어 놓았는데, 지문은 두 체계를 가르는 최종 기준을 검증 여부에 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런 대비형 지문은 먼저 비교 기준을 한 줄로 잡아 두면 판단이 선명해진다. 이 문항에서는 '개인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가'는 두 체계의 공통 조건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가'가 둘을 가르는 구별 기준이다. 선지가 공통 조건을 구별 기준으로 바꾸면 오답이다.

암기 포인트

믿음의 체계는 미검증이지만 개인에게는 사실이고, 사실의 체계는 검증된 지식이라는 대비로 정리된다.

NoteBase